

방사선조사식품과 소비자의 수용도

김 효 정 (인제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가족·소비자학과 조교수)

김 미 라 (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부교수)

방사선조사는 방사선 에너지를 식품에 노출시켜 살균, 살충, 발아 억제 작용 등을 통해 식품의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품질을 개선하는 등의 여러 가지 생물학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실시하는 식품 저장·가공 기술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방사선조사 식품의 이용이 확대되고 수출입 식품에 대한 방사선처리가 증가되고 있는 국제환경 하에서 본 연구는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및 수용도를 살펴 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수용집단과 비수용집단을 구분짓는 변수를 파악함으로써 방사선조사 식품의 실용화 및 소비자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 대구,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00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배부된 600부 중 부실기재라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한 50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관심도는 대체로 높았으나,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수용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56.4%가 '섭취하겠다'라고 응답하였고, 37.0%가 '섭취하지 않겠다', 그리고 6.7%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다. 방사선조사 식품의 수용도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가계소득, 소비자교육 경험, 소비자전문지 구독 경험,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인지도,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관심도, 식품 안전성에 대한 정보탐색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과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에 비해 여성이, 그리고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방사선조사 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방사선조사 식품의 구입의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는데 있어 방사선조사 식품의 인지도는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대체로 낮았기 때문에 집단을 구분하는데 있어 판별력 있는 변수가 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자신이 구매하고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섭취하고 있는 식품이 과연 안전한 것인지 알 필요가 있으며, 방사선조사 식품의 경우도 이용이 확산되기에 앞서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소비자들에게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아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방사선조사 식품을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기관을 비롯한 각종 소비자단체, 식품가공업자, 제조업자들의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